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노연경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4개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삼분의 일 정도로 작았지만 교통편은 더 편리했다. 그리고 중국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반에서 60% 이상은 무조건 중국인 들이었다. 학교 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바로 옆에 YMCA가 있는데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면 헬스와 수영장 모두 이용 할 수 있어 운동하기 좋은 곳 이었다.
수업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뉜다. 레벨 3,5,7은 오후반 레벨 4,6,8은 오전반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레벨로 오전과 오후반이 나뉜다. 레벨에 따라 수업방식이 달랐다. 낮은 레벨에서는 speaking을 많이 하며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었고, 높은 레벨에서는 writing 특히 essay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 레벨에 상관없이 랭가라에서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였다. University로 transfer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고, 수업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 미리 준비해주는 방식이었다. 주마다 테마가 있었고 그 테마에 맞게 reading과 listening을 했고 그걸 작은 시험으로 이주에 한 번씩 봤다. 숙제가 매일매일 있었고, 프레젠테이션도 레벨에 따라 한번에서 두 번 정도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홈스테이 오피스에 우리대학과 일본대학을 담당하는 분이 있다.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상품 환불 문제로 상담하러 갔을 때 아주 친절하게 응해주셨다. 학생들을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인가 능숙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또 큰 위로를 주셨다. 홈스테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밴쿠버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분께 찾아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온도는 우리나라 보다 높지만 날씨가 건조해서 쌀쌀할 때가 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꽤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우산이 잘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레인코트, 레인부츠가 있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파견 당시 선생님들이 모두 옛날에 비해 비가 자주 안 온다고 말했었다. 그곳도 우리나라처럼 이상기후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비가 아주 많이 올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가방이 여유가 된다면 모두 챙겨가고 그렇지 않다면 밴쿠버에서 싼 걸 구매하고 버리고 가는 것을 추천하다.
안전	Downtown의 eastside만 빼면 아주 안전한 곳 이다. 밤 늦게까지 지하철과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늦은 시각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 할 수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외국에서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숙소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까지는 15분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고, 우리집은 특별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했다. 이층에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학생 것 나머지 하나가 내 방이었다. 이층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이 보장 되었고, 같이 이층을 쓰는 일본인 친구와 많이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식사	식사는 가족에 따라 많이 다르다. 필리핀 가족인 언니들은 거의 매일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집은 백인 가정이라 빵이 주식이었다. 홈스테이 엄마가 직접 구운 모닝 빵 같이 생긴 빵에 삶은 계란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넣어준다 거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줬고 과일이나 야채, 브라우니 같은 것도 점심으로 챙겨줬다. 그리고 저녁은 간소하게 먹는 편이었는데, 가끔 밥으로 요리된 리조또나 카레를 해주었고 대부분은 야채와 스프, 빵 같은 종류였다. 그리고 홈스테이 집의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저녁시간은 5시 30분 내외로 매우 이른 시각이었다.
교통	Langara 근처 교통은 아주 편리한 편이었다.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 정류장이 있었고, downtown으로 가는 지하철이 수시로 왔고 막차도 12시 넘어서 까지 있었다. 또, 홈스테이 집에서 2 ~ 3분 정도 걸으면 downtown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나왔다. 그 정류장에 8번 버스가 왔고 랑가라 근처에 main street에 3번 버스도 downtown으로 갔는데 3번 버스는 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밴쿠버는 아주 안전한 도시지만 downtown east쪽은 마약 거래량이 북미에서도 손에 꼽히게 많은 곳이라 위험한 지역인데, 3번 버스가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버스에 혼잣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승차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200,000원	
Fees	없음	
보험료	한국 보험 약 20만원 내외	캐나다 보험은 비싼 대신에 보장 범위가 넓고 한국 보험은 싸고 보장범위가 좁다.
숙소	홈스테이	하루 - 25달러/ 한달 750달러
식비	약 50달러 (한달)	홈스테이에서 세끼 제공 주말에 놀러 갔을 때만 식비 사용
교통비	약 30달러 (한달)	학교는 걸어 갔기 때문에 주말에만 교통비 사용
책값	0	프린트물로 나눠줬다
합계	3.4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백인 홈스테이나, 백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밴쿠버를 multi-cultural 도시라고 했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있고 다양한 언어가 들린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는 하루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 밴쿠버에서 있었던 시간이 정말 짧았지만 소중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짧지만 정이 많이 든 친구들도 생겼었다. 특히 같이 홈스테이를 한 일본인 친구와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 친구가 홈스테이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첫 한 두 달은 적응하느라 바빠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적응을 할 때 쯤이면 한국에 친구, 가족 모든 것이 그리워 지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일수록 밴쿠버에서 사귀어 사람들에게 정을 붙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2개월쯤 뒤부터 주기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그리워, 그리워 않기를 반복했었고 그리울 땐 항상 일본인 친구 방에 가서 수다를 떨면서 극복해 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추석 때 홈스테이 집에서 한 한국음식파티



같은 반 친구들이랑 기말고사를 마치고 찍은 사진



캐나다 Thanksgiving 때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빅토리아 놀러 간 날



교환학생 같이 온 언니들과 함께 간 로키산맥 여행



할로윈 때, 일본인 친구랑 찍은 사진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홍보한 날